

## 무늬만 '무더위 쉼터' 많네

기사입력 2018-06-12 17:39

"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 나서 안 틀어줘요. 구청에서 지난주 왔다 갔는데,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."

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필동노인정. '무더위쉼터'로 지정된 이곳 2층에 올라가니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. 이 노인정은 매일 30여 명의 할머니가 오가는 곳으로, 2층에는 할머니들의 식사를 마련하는 주방이 있다. 한 할머니는 "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요리하는 데 너무 덥다"며 "우선 선풍기 몇 대를 돌리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"고 말했다.

전국적으로 4만개에 달하는 무더위쉼터 중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 무더위쉼터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고령자, 노약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장소로, 보통 아파트 인근 경로당, 복지회관과 주민센터,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정된다. 무더위쉼터란 표지판이 설치돼야 하며 에어컨, 구급약 등이 구비돼야 한다.

11~12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 무더위쉼터 중 8곳(중구 2곳, 성북구 2곳, 용산구 4곳)을 무작위로 택해 살펴본 결과, 총 6곳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. 구급약이 비치되지 않은 곳이 4곳,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1곳, 무더위쉼터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1곳이었다.

전국적으로 1970곳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주민센터 중 서울시가 모범 사례로 홍보하는 홍제3동 주민센터에는 카페와 쉼터가 따로 마련돼 있다. 하지만 성북구·용산구 일부 주민센터는 단순히 민원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.

[나현준 기자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© 2012 mbn money. All rights reserved.